

천연희 노트에 대한 언어·문화적 분석

안예리*

〈차 례〉

- 서론
- 신여성, 사진신부가 되다
- 천연희 노트에 나타난 언어적 혼종성
- 결론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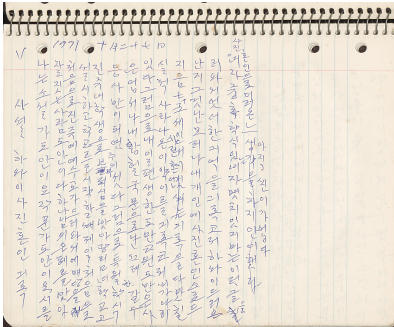
천연희 노트는 1915년 하와이로 건너가 19세의 나이에 사진신부가 된 천연희가 노년이 되어 1971년부터 1984년까지 남긴 자전적 기록으로, 사진신부로서의 이주 동기와 과정, 결혼 생활 및 하와이 정착 과정, 그리고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천연희는 사진신부로서는 드물게 근대식 학교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고, 자신의 직문 능력을 심분 활용해 사진신부들의 일대기를 일곱 권의 노트에 남겼다. 이러한 기록에는 당대의 생생한 일화들뿐 아니라 천연희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도 나타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교육 받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당대 하와이 한인 여성 단체의 진보적인 활동과 어우러지며 천연희 개인이 하와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간 과정을 살펴 보았다. 또한 천연희 노트의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다문화적 환경에서 살아간 이주 한인들의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주 출신 천연희의 글에 경상 방언뿐 아니라 전국 방언 어휘가 두루 사용된 것에서 방언 접촉의 결과 나타난 이주민 언어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한국어 문장 안에 영어, 일본어, 하와이 피진어 등 외국어를 뒤섞어 쓰되 주제에 따라 특정 언어를 선별해 사용하는 선택적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작성된 글임에도 20세기 초, 즉 한국을 떠나올 당시의 어휘와 표기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한국어가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혼종성을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하와이, 사진신부, 디아스포라, 천연희, 언어적 혼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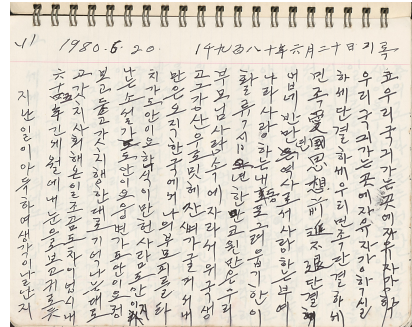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1. 서론

천연희 노트는 1915년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간 천연희(1896-1997)가 1971년(75세)부터 1984년(88세)까지 약 13년간 자필로 자신의 일평생을 기록한 7권의 노트를 말한다. 이 노트에는 천연희가 사진신부가 된 배경과 동기,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이주해 간 과정, 결혼 생활과 하와이 정착 과정, 그리고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희 노트는 개인적인 회고록의 성격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탐구하는 “자서전적 생활문화기¹⁾(autoethnography)”로서 평가받으며 한인 이민사 연구에 널리 참조되고 있다.



[그림1] 천연희 노트 1권 1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2] 천연희 노트 7권 1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천연희 노트는 2012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기증되었다가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기증되어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²⁾. 문옥표

1) 'Autoethnography'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에서는 '자문화기술지'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이덕희의 용어를 따랐다. (이덕희, 「천연희 기록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문옥표 외), 일조각, 2017, 19쪽.)

2) 문옥표 · 이덕희 · 함한희 · 김점숙 · 김순주,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2~3쪽.

외(2017)³⁾에서 이 노트들을 현대어로 옮기고 해제를 실어 단행본으로 출판한 바 있는데, 천연희 노트의 주요 내용을 권별로⁴⁾ 정리하면 [표1]과 같다. 1권에는 기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적혀 있어 천연희 자신이 이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고향인 경상남도 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낸 어린 시절부터 호주 선교사 휴 커를(Hugh Currell, 거열휴) 부부가 세운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 그리고 사진신부가 된 과정과 하와이 생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의 가정사, 하와이 한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였다. 2권부터는 1권의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일부 새로운 내용이 더해졌는데, 7권에서는 하와이 여성 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1] 천연희 노트의 주요 내용

| 번호 | 기록 일자 | 면수 | 내용 |
|----|---------------|-----|--|
| 1 | 1971. 10. 27. | 114 | 기록의 동기 어린 시절 기독교 입문 학창 시절 사진신부가 되기까지 호놀룰루까지의 여정 첫 번째 결혼 생활 두 번째 결혼 생활 농장 생활 국민회와 한인 교회 |
| 2 | - | 130 | 국민회와 한인 교회 동지회와 한인기독학원 이승만 호놀룰루까지의 여정 첫 번째 결혼 생활 농장 생활 두 번째 결혼 생활 호텔 사업 세 번째 결혼 생활 제2차세계대전 카네이션 농장 |

3) 문옥표 외, 위의 책.

4) 4권은 결본이라 노트의 번호는 8권까지이나 총 7권이다.

| | | | |
|---|------------|-----|--|
| 3 | - | 113 | 카네이션 농장 호텔 사업 하와이의 일본인들 매리와 그녀의 가족 코코헤드로의 이사 밥의 입원 밥의 죽음 한국 여행 학창시절 |
| 5 | - | 69 | 제2차세계대전 코코헤드 집 노인 전용 아파트 생활 |
| 6 | - | 64 | 어린 시절 사진신부가 되기까지(소략) 마우이에서 오아후로의 이사 호텔 사업 카네이션 농장 이웃과의 정치적 갈등 한국 여행 밥의 입원 노인 전용 아파트 생활 |
| 7 | 1980.6.20. | 90 |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어린 시절 사진신부가 되기까지 이승만 국민회와 한인기독학원 하와이의 한인 교회들 대한부인구제회 동지회 |
| 8 | 1984 | 44 | 이승만 동지회 대한부인구제회 |

천연희 노트의 내용과 천연희의 삶에 대해서는 문옥표 외(2017)⁵⁾에 실린 다섯 편의 해제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사진신부 중 이례적으로 신식 교육을 받은 천연희가 사진신부로 살아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천연희의 기록을 내용과 표현의 제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분명히 할 점은 천연희의 노트에 기록된 사진신부로서의 경험들은 대부분 천연희만의 독자적인 경험이 아니라 당시 하와이 이주 한

5) 문옥표 외, 앞의 책.

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들이라는 점이다. 천연희는 자신의 노트에서 자기를 비롯한 사진신부들뿐 아니라 이들보다 먼저 하와이에 정착해 사진신부들을 이끌어 주었던 한인 아주머니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하와이에 와 여성 지도자가 된 이들의 경험을 두루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주 한인 여성들의 집단적 경험을 서술한 천연희의 관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 천연희가 하와이에서 사진신부로 살아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천연희 노트가 당시 이주 한인들의 언어적 혼종성을 반영한 자료임을 논의할 것이다.

2. 신여성, 사진신부가 되다

1) 어린 시절의 교육 배경

첫 한국인 사진신부가 하와이에 도착한 1910년부터 미국의 동양인 배척령으로 모든 아시아인의 입국이 금지된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간 사진신부는 680여 명이었다⁶⁾. 사진신부들은 대부분 제도권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여성들이었던데 반해⁷⁾ 천연희는 경상남도 진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정숙여학교(이후 광림여학교로 개칭)에서 약 6년간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 천연희는 기독교인이 된 어머니가 자신을 주일학교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후 기독교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은 학교 생활에 대한 천연희의 기록이다.

6) 이덕희, 앞의 책, 29~30쪽.

7) 웨인 패터슨,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정대화 옮김, 들녘, 2003, 144쪽.

(1) 내 나히 十一十二세집 되어서 그새 예수교 종교가 경상남북도에 드러온 지 얼마 안이 되었다. 우리 진주 처음으로 오스티엘니아에서 영국 목사 거 열휴가 가지고 진주로 와서 성 안에 집을 사서 예배당을 만들고 아해들을 모하 성경을 가라챘다. 그새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 그리 죽어니 쌀 들을 명 질고 복 주라 하고 절에 가서 불공하고 절을 만히 하면 제를 사한다 해서 절에 갈 때마다 나도 어머니 따라가서 불공도 더리고 부차님의 절도 만히 했다. 그러난 중 어머니의서 하로난 말삼하시기를 내가 장에 가니 야수 및 난 사람이 전도하기로 야소를 밋어며 모던 죄를 사하고 모던 활란을 면한다 하니 내가 야수를 밋어 너희 형제의게 활란 가지 안케 야수를 밋겠다고 쏘삼분이 너도 야수당에 단여 명을 니어라 하고 나를 성내 예수교 썬디스 굴을 보내엿. 그래서 예수 밋고 쏘 그혈휴가 의사요, 목사요, 학교 교장으로 시무한 지 침으로 예수교 사립학교를 다 설시하고 남학교 일홈은 광립 남학교이요, 녀학교난 정숙녀학교라 일홈을 지었다. 몇 해 후에 광립녀학교로 곤쳤다.

이 학교난 비봉산 밋헤 남학교 잇고 녀자학교도 잇었다. (...)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히 밋은 나는 진주 예수 사립 교회 학교에서 고등 사반까지를 하였다. 처음 설립자로 선생님은 박 선생이다. 창입 학생은 박보녕, 강신애, 남경애, 천년희, 강점수, 강애경, 하은혜, 백인 선생은 시닐니 시부인, 마쿠레스대 부인이다. 두 영국 부인 선생이다. 한문 선생도 잇섯다. 합방 후에는 일본 선생 도구무라도 잇섯다. <노트1:18-19>

당시 광립학교는 심상과 4년과 고등과 2년으로 학제를 편성하였는데 천연희의 수학 기간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연희는 여러 교과목 중 국어 작문을 특히 좋아했고 역사와 한문⁸⁾, 습자도 즐겼으며 학과 성적은 늘 2등을 했다고 회고했다<노트 3:113>.

8) 천연희는 노트에서 간혹 “육망이란망이요 불사이자사이다<노트2:126>.”나 “별류천지비인간이오 록음방초성화시요<노트3:92>”와 같이 한문구를 사용했는데, 각각은 ‘慾忘而難忘이요 不思而自思’, ‘別有天地非人間이오 綠陰芳草勝花時’라는 한시의 문구로, 천연희가 학창 시절 한문 교과에서 배운 것을 한자 없이 한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희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일병합이 일어났고 교실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일본 순사의 불시 점검이 있었고 일부 학생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다. 천연희는 이와 같은 일상을 겪으며 큰 상처를 받았고 학교 친구들과 늘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을 했다고 술회했다.

(2) 우리 가정을 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 디리, 생리학, 산술, 도화, 동물학, 바너질, 성경, 테조, 십자자, 이 모던 가정을 공부했다. 엇더한 날은 갑자기 일본 순사 올라와 책을 뒤집고 공부를 못 하게 하고 우리 력사 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역사 과정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분이 나서 통곡도 해였다. 그후에는 우리 공부할 때 일본 순사가 오나 직히고 저기 오난 것만 보면 책을 다 숨겼다. 석탄광에 너혔다. 순사가 와서 역사책은 업서니 말 못 하고 성경에 사도 hing 전서 바울 행적을 배우지 말나 하는 말까지 하였다. 모던 것이 압박과 압제를 준다. 그리고 그중에 사상이 조헌 청년이 진주에 잇서면 우리 남학생 중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추달을 한다. 제국 정치 반대자와 도모자라 하고 옥에 가두고 추달을 하여 병신을 만드러 정신 병자 모양으로 아모것도 모러난 등신을 맨드랴다. 그와 갖치 자유 업난 나라 백성 참 불상 한다. 이 모던 것이 내 마압에 상처 되여서 자유 세상을 차졌다. <노트 1: 22-23>

(2)의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서 천연희는 자유 세상을 찾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동급생 남경애로부터 하와이 사진신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일을 말한다. 1914년 여름, 마산에 다녀온 남경애는 마산에 사는 박태구의 딸 박금우가 하와이로 시집을 갔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하와이에 가겠다며 박태구에게 사진혼인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⁹⁾. 이 이야기를 들은 광림 여학교 학생들 중 서너 명이 하와이행을 결심했는데 모두 부모의 반대로 뜻

9) 남경애는 천연희보다 먼저 하와이에 가 1914년 10월 한장춘과 결혼했다(문옥표 외, 앞의 책, 165쪽).

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천연희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꾸 죽는 것을 두려워해¹⁰⁾ 천리만리를 가더라도 죽지만 말고 오래 살라며 허락을 했고, 이후 천연희는 마산으로 박태구를 찾아가 사진혼인의 주선을 부탁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3) 박태구 씨가 내가 하와이 간다 하니 깜작 놀내면서 “네가 와 하와이로 가나. 내가 진주 가서 너거 집에 가 보니 참 부자로 잘 사는데.” 하시였다. 그새 우리 집에 주식회사를 치고 관인관들이 유식하였다. 우리 집은 크고 운물이 집 안에 잇섯다. 우리 선생님들 깜작 놀내고 “네가 와 하와이로 가나. 남편 될 사람도 보지 안코 그개 간 사람들은 무식군 농민이 드러자다.” 하는데 그새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모 소래도 귀에 오지 안코 자유 나라 갈 그 생각بات기 업고 쉬집을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사는 그 마음은 둘째, 위국 가는 것이 첫째 되여서 갈방질방 업시 주선을 하는 중이다. 사진을 박아 하와이로 보내고 진주로 도라와서 학교로 단닌다.〈노트 1:26-27〉

부유한 형편에 학교 교육을 받은 천연희가 일자무식의 농민인 하와이 총각¹¹⁾과 혼인하겠다고 하자 주선자인 박태구도 학교 교사들도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¹²⁾ 하지만 천연희는 자신의 하와이행을 단순한 혼인이 아닌 일체의 폭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떠날 준비에 매진했다. 천연희의 동급생 친구들도 사진신부가 되고 싶어했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여학

10) 천연희는 자신의 집안이 단명한 까닭에 사진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본래 천연희의 부모는 9남매를 두었는데 다섯 딸 중 둘째, 셋째 딸이 출산 후 병을 얻어 목숨을 잃었다. 네 아들 중 둘이 홍역으로 어릴 때 죽었고, 나머지 둘도 후사병, 괴질로 죽었다. 결국 첫째 딸과 넷째 딸, 그리고 막내인 천연희만 살아남은 것이다.〈노트1:13-14〉

11) 실제로 천연희와 결혼한 김찬록은 한문에 대한 약간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12) 천연희가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고향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광림여학교의 시빌리 교사는 “천연희는 아무것도 집안에 부족함 없이 산다는데 왜 보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며 극구 만류했다.〈노트 1:29〉

생들에게 하와이행은 외국에서 자유롭게 살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 듯하다. 마산에서 일찍이 하와이로 떠난 박금우에 대해 천연희는 ‘그이도 마산에서 일찍이 여자 해방을 받고 신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체격도 씩씩해서 여자로서 한 자리를 하는 신식 여자였다.’라고 적었다. 즉, 일면식은 없지만 자신처럼 신식 교육을 받은 박금우가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여성 해방을 꿈꾸며 하와이로 떠난 것이다¹³⁾.

하지만 이들의 단꿈은 오랜 항해 끝에 하와이에 당도하자마자 허망하게 무너져내렸다. 배에서 내린 사진신부들은 이민국에 갇혀 남편 될 사람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진에서 봤던 젊은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두 배 세 배는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남편이라며 나타났던 것이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사진신부들 앞에는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농장 생활과 생계를 위한 혹독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19세의 나이에 46세 길찬록과 결혼한 천연희도 예외가 아니었다.

2) 하와이 생활과 자녀 교육

천연희는 마우이섬 파이아 농장 캠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길찬록은 술을 마시고 결근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천연희는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농장 노동자들의 옷 빨래도 하고 바지와 버선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듬해 첫째 딸이 태어났고 이어서 아들과 딸을 출산한 천연희는 다섯 식구를 건사하기 위해 이런저런 돈벌이를 찾아다니다 1922년 오아후섬 와이피아 후로 거처를 옮겼다. 이 무렵부터 길찬록과 별거를 시작했다가 1924년 박대

13) 천연희는 하와이 가는 길에 고베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대기하던 중 평양 출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여학생 다섯 명을 만났다. 당시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며 천연희는 평양이나 서울은 일찍이 신식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도 일찍 들어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경상도는 교육과 교회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하며 ‘우리는 공부하여 자유를 원했지만 일본 제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이 출사, 추사를 결박하여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진혼인으로 들어오고자 희망했다.’라고 덧붙였다(노트2:101). 이를 종합하면 천연희는 유학길에 오른 여학생들을 동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은 서울이나 평양처럼 일찍 신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유학은 가지 못해도 자유를 찾아 사진혼인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길찬록과 이혼한 뒤 박대성과 결혼해 딸 둘을 더 낳았다. 박대성과의 결혼 생활 동안 천연희는 호텔 사업을 시작했고 호텔 1층에 음식점도 개업해 사업을 키워갔으나 1938년경 결국 박대성과도 이혼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천연희는 호텔 사업을 이어갔고 1941년 히캄 부대에 근무하던 미국인 군인 밥(Robert Anderson Given)과 세 번째로 결혼해 히캄 병영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당시 몇몇 한인들이 코코헤드의 야산을 개간해 카네이션 농사를 지었는데 1942년부터 천연희도 이에 합류했고 1945년경 코코헤드로 거주지도 옮기게 되었다. 1969년 카네이션 농장을 정리하고 1970년 정부 공공주택기관에서 보조하는 노인 전용 아파트로 이사회 여생을 보내다 1997년 향년 101세로 사망했다.

이상과 같이 요약한 천연희의 하와이 생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이다. 하와이 사진신부 중에 이혼을 하고 재혼한 여성들은 적지 않았지만 천연희처럼 세 번 결혼을 하거나 미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천연희 노트에 따르면 두 번 다 이혼의 주된 사유가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였다.

길찬록의 경우 결혼 초기부터 줄곧 음주 습관으로 돈을 탕진하는 문제가 있었다. 천연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내 몸이야 어찌 되든지 자식을 가르쳐 놓아야 하는데 저 영감 데리고 어찌하나’ 하는 걱정 속에 살았고 가정 형편이 극히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에 사회 보장 연금(welfare)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당시 미국에서는 사회 보장 연금의 구제를 받은 가정의 아이들은 7학년까지만 학업을 지속한 후 부모를 도와 일을 해야 했다. 즉, 자녀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천연희는 이혼을 해서 길찬록 혼자 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리도록 하고 자녀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건사해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14) 김순주, 「세 번의 결혼과 가족생활」,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59쪽.

(4) 한국 여자 해방이 업난 나라로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학교에 보내고 예수를 믿게 하였는데 나는 이 조헌 나라에 와서 자녀를 가라치지 못하면 부모의 직책을 못한 내가 될 수 업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 그래서 안만 해도 저 영하고 못 살갓소. 아해들을 키우야 되니 내가 엇지 혼자서 키울 수 잇소. 영감은 불상하지마는 할 수 업소 하고 강력히 내가 말했다. (...).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구제맞지 안코 우리 아해들을 키우다가 저히들 재주 잇서 공부를 대학가지 식힐 수 잇게 식힐 작정이다. 무선 형편이 되던지 공부할 수 잇서면 식힐 작정으로 했다. 그리하기로 내가 작정 허 었다. 우리 나라가 백성이 보통교육이 업서 노야 백성이 되었난대 위국에 파서 자식 공부를 못 식힌다며 무선 부모의 직책이 안이라 생각하고 공부식이기로 내 마음으로 작정 허 었다.〈노트1:78-79〉

10여 년간 남편 대신 실질적 가장 역할을 했던 천연희는 이혼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교육을 생각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여성이 해방되지 못한 고국에서 계집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고 모든 친척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는데, 자유의 나라 미국에 온 자신이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이른 것이다.

길찬록과 별거 중에 천연희는 박대성을 만났고 이후 재혼을 하는데, 이때 천연희는 박대성에게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혼인 서약을 했다.

(5) 그래서 이혼할 때 박 씨의게 단단이 계약을 벗었다. 당신이 내하고 혼인하면 우리 아해들을 당신 아해갓치 사랑하고 공부식혀 주겠는가 하고 약속을 벗었다. 그리하마 했다. 그래서 내가 혼인하였다.〈노트1:97〉

결국 박대성과의 결혼 생활은 14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두 번째 이혼의 사유 역시 교육 문제였다. 결혼 생활 동안 박대성이 천연희가 길찬록과의 사이

에서 낳은 아이들을 차별했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박대성이 천연희 큰딸의 대학 진학을 반대하면서 부부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 (6) 맞춤 내 딸이 중학을 맞치고 대학에 드려갔다. 공부를 잘한다. 박은 딸이 대학 가는 것이 반대다. 중학 맞치면 어대 가서 일하고 돈벌이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그 목적이 아니다. 내가 길찬록 씨를 이혼한 연유난 아해들 자유로 공부시킬 작정으로 한 목적인 고로 내 주의에 작정은 누가 빼어서가 지 못한다. 내 몸이 업설질망정 내 목적은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충돌이 집에서 있다.〈노트2:82-83〉

천연희의 큰딸은 한인대학교학생회 회장직을 맡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활발히 대학 생활을 했다. 그런 큰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학업을 포기하고 돈벌이를 하라는 남편을 보며 천연희는 당초에 길찬록과 이혼을 한 것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막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천연희는 자신이 그토록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7) 나로서 자식 고¹⁵⁾육을 중하게 안 것은 여러 가지로 까닥이 잇섯기로 자식을 교육식히야 된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이는 사람이라야 일도 조헌 일을 할 수 잇고 저 개인이 사는 데 요소가 되고, 둘째로는 그 나라 조헌 백성이 되여 올코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 정부를 맞더러 조헌 백성이 되고 저해와 지식이 잇서면 그 나라에 역적이 되지 안코 충성되는 백성이 된다.〈노트2:92〉

천연희에게는 교육을 받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잘 건사할 수 있다는 생각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면 국

15) '교육'이지만 원문에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다. 천연희 노트에는 오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가를 배반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좋은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노트 곳곳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주에서의 학창시절 동안 한일병합을 경험한 천연희는 어느 날 갑자기 동장이 동네를 돌며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기는 다 내리고 일본 기를 달라고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라가 몽매하여 촌백성은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자신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깃발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노트1:20>. 또 우리나라가 4천 년 역사를 가졌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아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백성이 많지 않고 백성들이 대부분 무식하기 때문에 일본에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¹⁶⁾<노트2:96-97>.

3) 교육에 대한 신념

이처럼 천연희는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중대한 결정들마다 교육이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천연희의 노트 자체도 바로 교육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는데, 천연희는 1971년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며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8) 나는 소설가도 안이요, 작문가도 안이요, 시를 잘 짓는 사람도 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처음으로 진주에 예수교가 드러와서 예배당을 설치하고 학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진주 녀학생으로 주의 부력심을 받아 광림녀학교 고등 사반이 되었었다. 그럼으로 특월한 학식은 업서나 내 알힐 국문으로난 쓰려 갈 수 있다. 그럼으로 내 일편생 한도 만고 원도 만은 사실적 사라나온 이약이를 기록코저. 내가 나히 지금 75세인데 이 사진혼인 그

16) 이러한 관점에서 천연희는 이웃에 사는 하와이 원주민 여자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비판하다 같음을 빗기도 했다. “내 것해 사는 하와이인 녀자가 술만 먹고 아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안코 교육을 잘 식이지 안코 하니 죠현 잡이 잇서도 감당 못 하니. 죠현 학교가 만타. 가미야 미도 잇고 부노후 학교도 잇서니 교육식히서 죠현 잡이 잇서면 하지 안나. (...) 그래 그 토종 녀자 켜달코 아라דת고 지금이라도 토종이 아해들 교육 열심하는 것이라 말한 것이 (...)<노트5:34-35>”

록을 다 맛칠난지 그것 난 모러나 내 개인에 사진혼인으로 드러와서 었더
한 기억을 기록코저. 하와이 드러온, 사진혼인으로 드러온 너자 중 혹 학식
잇는 너자 몇치 잇지마는 이런 글을 아직 썬 이가 업다. <노트1:2>

자신이 특별한 글재주는 없지만¹⁷⁾ 일찍이 여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문으로 자기 이야기를 쓸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진신부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진신부의 삶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록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당시 천연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코코헤드의 집을 떠나 노인 전용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의 사회 활동이 어려운 나이가 되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심분 활용해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지고 말 수도 있는 사진신부들의 이야기를 촘촘히 적어갔다. 학창시절 국어 작문을 특히 좋아했던 천연희는 7권의 노트에 자서전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사진신부로서 또한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사진혼인을 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오는 과정을 기록할 때 천연희는 신식 교육을 받은 여학생의 시선으로 당시의 경험을 기술했다.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고베에 머물 당시 길에서 흑인을 처음 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책에서 오색 인종에 대해 배워¹⁸⁾ 흑인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17) 이러한 점사와 달리 노트 곳곳에서 천연희의 글재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을 소개하며 “나는 진주 사람으로 진주 태생이다. 진주난 어대맨가, 진주난 디리로 영남이다. 조선 지리로 十三도에 드러난 뱃적에 경상남도 슈부이다. 디리의 경치를 말하면 뒤로난 비봉산이 잇고 옆헤난 순천봉이 있다. 순천봉 옆헤는 공자를 모신 생교가 잇고 보향남학교가 잇섯다. 썬 옥봉이 잇고 적언 못이 잇고 니비를 양성하는 양잠소가 잇섯고 압허로난 남강이 둘러 잇고 남강변에 축석루가 우둑소사 잇고 그 밋헤는 예암바위가 잇서 룬개의 사당이 있다. 이 성은 진양(양)성이요, 아참뱃치 영원무궁 명하다. 뱃적버터 성안, 성 박기 잇서 성 안에는 관찰사가 잇고 성 박게는 본관 사도가 잇섯다. 뱃적에는 성이 둘러 잇고 성문이 잇섯다. 사진혼인의 이야기가 이 성에서 생기였다. <노트:3>”라고 하여 눈에 보이는 듯한 생생한 풍경 묘사에 이어 마지막 문장에서는 극적인 효과까지 더했다.

18)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세계지리 교과서로 널리 활용되던 험버트의 『사민필지』(11쪽)에서 “몽고사람들은 살스뱃치 중 누르며 털스뱃과 눈스뱃혼 검고”, “멜레스사람들은 살스뱃치 검붉으며 털스뱃과 눈스뱃혼 검고”, “이디오변스사람들을 살스뱃치 검으며 털은 검은 양의 털 궂고 눈스뱃도 검고”, “고기션스사람들은 살스뱃치 희며 털스뱃혼 검으디”, “아메리칸스사람들은 살스뱃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라고 하거나<노트1:33-34>, 시베리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둥글게 한 후 물과 육지를 내고 탄소와 수소를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인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럼으로 창창한 대해에 운선 하나를 띄우고 수백 명 선객이 선장 한 사람만 믿고 목적지를 바라본다.'라고 하며 기독교 교리와 과학적 지식을 뒤섞은 감상을 적기도 했다<노트1:41>.

마우이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 천연희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사흘간 산통을 겪다가 위험한 상태가 되어 결국 동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달려와 기계로 아이를 꺼냈다<노트1:63>. 당시 경험을 회상하며 천연희는 의사를 좋아하지 않는 '고풍(古風)'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보였다. 진주에서의 학창 시절 모든 학생들은 선생이 되거나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며 시험을 치러야 했고, 자신도 배돈병원에 가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간호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출산 시에 자신은 일단 병원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자신을 돌봐 주던 나이 많은 한인 아주머니가 '우리는 아이 여럿을 낳아도 의원도 안 오고 병원에 안 가도 잘 낳았다'라고 하며 병원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천연희 자신은 병원에 가는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사흘간 산통을 겪다가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 출산 방식을 고수하다가 아이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으로 출산을 한 천연희는 자신이 받았던 근대식 교육이 옳았음을 몸소 확인하게 되었다.

4) 사회 활동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연희가 사진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고향과 가족들을 등지고 만리타국으로 섣뚱 떠날 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배경에는 교

구리스빛치며 털스빛과 눈스빛혼 검으니라"라고 하여 세계의 인종을 다섯으로 분류한 바 있다.

육을 통한 자의식의 성장과 여성 해방에 대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는 많은 여성들이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자된 도리로 여기던 사회였지만 천연희처럼 신식 교육을 받은 이른바 신여성들은 구태를 벗어나 여자도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남자에게 의존하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된 것은 『신여자』, 『신여성』 등의 잡지가 출간되기 시작한 1920년대였다. 천연희처럼 1890~1900년대에 학교에 다니며 근대식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¹⁹⁾. 천연희가 하와이로 떠나지 않았다면 신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태평양을 건넌 천연희는 당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에서도 매우 강한 자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의식은 사진신부의 삶에서 어떻게 체현되었을까? 사진신부가 되며 천연희의 꿈은 좌절된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큰 무대에 올려졌다고 할 수 있다. 천연희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여성단체를 통해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조국의 독립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 활동을 지속해 갔던 것이다.

천연희는 자신이 하와이에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회 회원이었고 동지회 회원이었다고 밝혔다. <노트3:77-78> 국민회는 1909년 2월 1일 미국 본토의 공립협회와 하와이 합성협회가 통합하여 탄생한 미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로²⁰⁾, 그해 8월 캘리포니아 과사데냐의 대동보국회가 합류하며 대한인국민회로 이름을 바꾸었다²¹⁾. 천연희의 가입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트 곳곳에서 국민회의 회의 과정과 여러 활동들, 지도부에 대한 생각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동지회는 1921년 이승만이 조직한 한인 단체로, 천연희는 민족 교육에 대한 이승만의 공을 높이 사며 그를 지지했다²²⁾.

19) 1920~1930년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신여성인 나혜석은 1896년생으로 천연희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20) 이덕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8쪽.

21) 이덕희, 위의 책, 19쪽.

22) 김점숙, 「천연희의 사회참여 활동」,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또한 천연희는 국민회에서 발간한 『국민보』와 동지회에서 발간한 『태평양잡지』, 『태평양주보』의 애독자였다. 천연희는 하와이에서 간행되는 한인 신문들을 보고 어느 농장에 한인이 많이 살고 어느 농장주가 한인들을 잘 대우해 준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 좋다든지 하는 실용적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노트1:66-67〉, 세계 정세나 고국의 상황에 대한 기사도 빠짐없이 챙겨 봤다²³⁾.

- (9) 해동여관에서 길 씨를 짜라 마위로 드러와서 기간니아에 집을 어더 자리를 잡고 하로난 태평양잡지가 오고 국민보가 왔다. 내가 참 깃뎀다. 책과 신문을 일어 보고 모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 한 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문 잡지를 그날 오기만 기대리고 보았다.
그새 내가 하와이 드러올 쎄 세계 일차 전장이 나서 싸울 쎄이다. 이 잡지와 신문을 보고 소식을 안다.〈노트1:101〉

천연희는 1915년에 하와이에 온 뒤 1922년까지 마우이섬에 살았는데, 1919년 3월 15일 호놀룰루에서 여성 대표 41명의 주도하에 대한부인구제회가 조직되자²⁴⁾ 천연희도 마우이 지부의 서기직을 맡았다〈노트8:54-55〉. 「대한부인구제회 장정」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우리 여자들도 하늘이 준 국민 고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함이 천직인 줄로 자각’하였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고²⁵⁾, 취지서에서 ‘오늘날은 그 전과 같이 무심하게 가정생활만 할 시기가 아니라 20세기 활동 무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활동할 시기이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대한부인구제회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민으로서의

96쪽.

23)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와이 한인들 중에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천연희는 당시 보통교육을 받지 못해 국문을 읽지 못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았다고 하며, 글을 아는 아저씨가 신문을 읽어 주면 다 같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다.〈노트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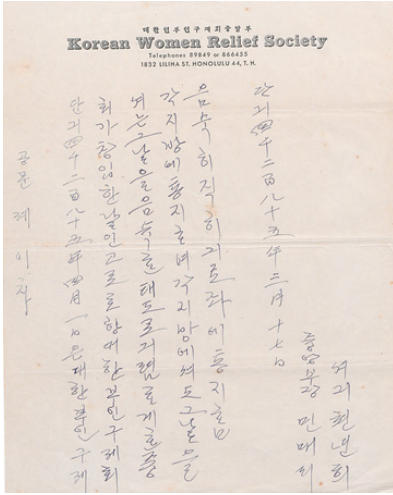
24) 대한부인구제회의 결성 모임에 41명의 여성 대표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부인구제회는 일개 여성 단체가 아닌 범교포적 조직체였다고 볼 수 있다(이덕희, 앞의 책, 150~151쪽).

25) 이덕희, 앞의 책, 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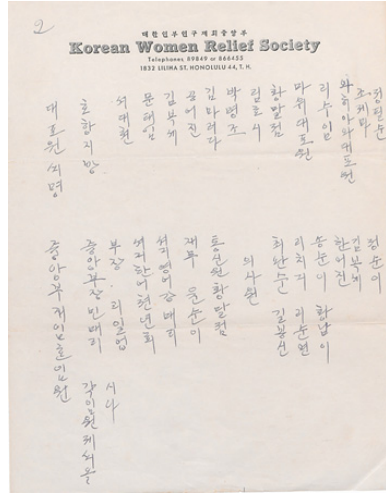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식적 각성과 조국의 독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체였다. 천연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부인구제회의 활동은 진주 여학생 시절부터 꿈꾸던 대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자 조국이 일제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다.

대한부인구제회 설립 이전에도 하와이에는 신명부인회, 부인교육회, 대한부인회 등 한인 여성들의 단체가 있었다. 이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교육이나 남녀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안중근 의사 재판 경비를 위한 의연금 모금이나 조국의 광복을 돕기 위한 기금 모집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²⁶⁾. 초창기 이주 한인 여성들은 대부분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농장 안팎에서 다양한 생업 활동을 했고, 한인 단체와 교회를 통해 상부상조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같은 시기 국내의 여성들에 비해 사회 참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하와이 한인 여성들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 나갔고 천연희 역시 그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앞서 말한 대로 천연희는 1919년 마우이 지부 서기직을 맡았는데, 1952년과 대한부인구제회 공문과 1953년 회의록에서도 ‘서기 천연희’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천연희는 오랫동안 서기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26) 오은영,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1919~194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15쪽.



[그림3] 1952년 대한부인구제회 공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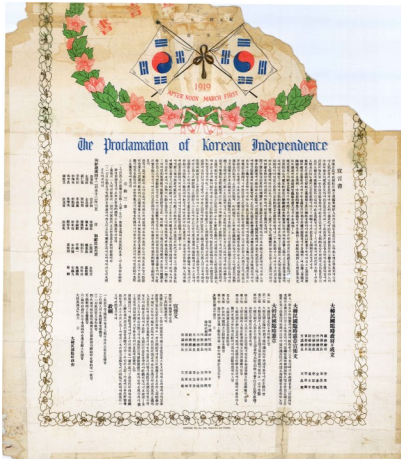


[그림4] 1953년 대한부인구제회 회의록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글쓰기에 능숙한 여성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작문에 소질이 있던 천연희의 능력은 빛을 발했을 것이다. 서기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적 문서와 각종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일의 전말과 참여자들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노년의 회고임에도 천연희 노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활동상이 자세히 기록된 것도 서기로 일한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천연희는 노트에서 대한부인구제회에 대해 1919년 한국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하와이 4개 섬의 부인들이 회집하여 호놀룰루에 중앙부를 세우고 각 지방에 지방회를 두었다고 하며 당시 활동했던 여성들의 명단과 활동상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 (10) 일도 만히 하고 돈도 만히 수봉하여 호항 중앙부로 보내서 한국 구제에 시기하고 부인들이 아해를 나서 안고 다니면서 배개넛해 태국 수로 나서 팔아 수봉을 하였다. 하와이 사 섬 부인들이 일반으로 지방회가 있고 돈 수봉하는 대 힘을 만히 썼다. 호항에 처음 구제회 창설노 중앙부장은 손마리아씨요, 그 후에는 민매리 씨, 손노디 씨, 김유실 씨가 중앙부장으로 시무했다. <노트2:14>

(10)에서 천연희가 일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수봉했다고 한 것처럼 대한부인구제회는 연극 공연과 특별 기금 모집 행사 등을 통해 독립자금 등의 각종 기금을 모집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했다²⁷⁾. 한 예로 대한부인구제회는 ‘대한독립선언서’를 가로 24인치, 세로 31인치의 컬러 포스터로 만들어 3,000장을 판매했는데, 그 수익 중 800달러는 상해임시정부로 보냈고 1,500달러는 3·1운동으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국으로 보냈다²⁸⁾.



[그림5] 대한부인구제회에서 제작한
대한독립선언서 포스터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그림6] 1921년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대한부인구제회는 모금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금을 독립운동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천연희에 따르면 회원들이 떡 장사, 목 장사, 대구포 장사 등을 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가 외교 활동을 하는 경비로 지원했다고 한다<노트8:38>.

27) 대한부인구제회의 활동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manoa.hawaii.edu/koreanstudies/ckslib/exhibitions/koreanorganizations/koreanwomensreliefsociety/>

28)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M&B, 2003, 83~84쪽.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기금이 풍성해지자 남성 중심이던 국민회에서조차 대한부인구제회를 국민회 지방회 중 하나로 포섭하고자 했다. 하와이 이주 초기에는 한인 단체의 정치활동에서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었지만 대한부인구제회의 힘이 커지자 남성들도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²⁹⁾³⁰⁾.

대한부인구제회는 국권 회복과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육 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회원들이 국어학교 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천연희도 1922년 와히아와³¹⁾에 거주할 당시 한국 아이들을 위해 국어학교 교사로 일한 바 있다.

천연희 노트에는 대한부인구제회의 구제 활동에 대한 기록도 등장한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다친 병사들을 위해 봉대를 개서 적십자회를 통해 각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고<노트8:24>, 전쟁으로 시내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자기 생업을 하는 틈틈이 길에 노점을 차리고 밥을 팔기도 했다<노트8:23>. 한편, 대한부인구제회는 일본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끌려와 하와이의 감옥에 갇히게 된 한국인 포로들을 위해 감시를 피해 감옥 담장 밑으로 고추장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넣어 주기도 했고<노트8:27>, 한국 고아원에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 가는 길에 호놀룰루를 경유하면 회원들이 항구나 공항으로 나가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며 돌봐 주기도 했다<노트8:28>.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하와이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던 천연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도 키워갔다. 하와이로 오는 길에

29) 오은영, 앞의 책, 36쪽.

30) 하지만 대한부인구제회는 국민회 산하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국민회의 활동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31) 마우이섬에서 살던 천연희 가족은 1922년 오아후섬으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와이파후 케이아후아 캠프5에서 주인집 결방살이를 했다. 이때 천연희는 세 달 동안 곡상(요리사)으로 일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던 중 와히아와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고 파인애플 공장이 생기자 일자리를 찾아 그쪽으로 옮겨간 한인들이 많았는데, 길찬록은 와이파후에 그대로 머물렀지만 천연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히아와로 가 한인기독교회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며 한글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합한회, 「천연희의 경제활동과 일가의 경영」, 문육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76~77쪽.)

일본 고베에서 흑인을 처음 보고 너무 무서워 얼어붙어 버리고, 길찬록과 결혼해 마우이로 가는 길에 하선을 도와주는 원주민을 보고 벌벌 떨었다던 천연희는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공감과 우정, 사랑을 경험했고³²⁾, 『국민보』 등 한글 신문을 탐독하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배워갔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진주만이 일본의 습격을 받은 뒤 천연희는 Hickam 기지에서 일하는 미군 청년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11) 그래서 희감에 일하는 청년이 다 아메 청년들 우리 집에 청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한다. 나도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라 그 부모가 그 아달을 사랑하기는 사람은 다 일반으로 엇더한 나라 사람 칼나던지 똑같은 염통이 잇서 그 부모와 갓치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노트3:109〉

피부색이 어떻든 사람은 누구나 심장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생각에 폭격을 당한 미군 청년들이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져서 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것이다. 또 징집되어 군부대로 들어가기 전 자신의 호텔에서 투숙한 미국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부디 살아남았기를 기원했다(노트3:112). 천연희의 다문화적 경험과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이 인류애의 차원으로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천연희 노트에 나타난 언어적 혼종성

천연희 노트는 당시 하와이 한인들, 특히 사진신부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냈을 뿐 아니라 초기 이주 한인들의 언어적 혼종성 또한 잘 반영한 자료가

32) 천연희의 딸이 영국 어머니와 독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남자와 결혼하던 이야기를 “그리하는 중 미국 되(뒤)팬서 온 남자가 나의 짝을 사랑해서 나의게 매리하것다고 물었다. (...) 어머니는 인글니시 아버지 썸만이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다. 내 달은 고래얀 미국 사람이다. 사랑은 칼나와 내서날뒤 엷다.〈노트3:10〉”와 같이 기술하며 사랑에는 ‘color’와 ‘nationality’가 없다고 하였다.

다. 하와이 한인들은 농장생활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같은 민족끼리 캠프를 이루고 살았지만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민족들과도 함께 노동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천연희 역시 다른 이주 한인들처럼 19세에 하와이에 온 뒤 평생을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려 살았다. 초기에 사탕수수 농장 캠프에 살았을 때는 중국 노동자, 일본 노동자, 필리핀 노동자 등 다국적 노동자들과 교류했고, 이후 도시로 나와 사업을 꾸려갈 때는 포르투갈 사람이나 하와이 원주민을 고용하기도 했으며, 백인들과도 다방면에서 교류했다. 그리고 45세에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편과 국제결혼을 했다.

이러한 다문화적 경험은 노트의 내용뿐 아니라 글쓰기에도 반영되었다. 천연희는 비록 영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다른 외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일상 생활에서 영어, 일본어, 하와이 피진어 등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다 보니 글을 쓸 때도 외국어 단어를 상당수 사용했다.

하와이 도착은 곧 새로운 언어 세계로의 도착이기도 했고, 19세 천연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국어는 하와이어 ‘makule’였다. 천연희가 노트에서 반복적으로 서술한 내용인데, 다른 한국인 여성들과 함께 이민국에서 남편될 사람이 데리러 오길 기다리던 중 이민국 직원이 ‘길찬록’이라고 쓰인 굴 한 봉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당신 남편이 가져왔는데 당신 남편은 ‘막구리’라고 했다는 것이다(노트1:44). 그 말을 들은 천연희는 ‘막구리’가 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본 여자에게 물어보았고 일본 여자는 ‘막구리’가 하와이어로 늙은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천연희는 길찬록을 실제로 보기 전에 자기 남편될 사람이 사진과 달리 나이가 매우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천연희는 농장 생활을 하며 다국적의 농장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하와이 피진어를 익혔다. 하와이 피진어는 모어가 서로 달랐던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생활상의 필요로 기초적인 하와이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는데, 하와이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단어도 섞여 있었다³³⁾. 천연희는 농장 생활에 대해 기술할 때 (12)와 같

33) Sakoda, K., and J. Siegel. *Pidgi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Creole Languages of Hawai'i*. Honolulu: Bess Press, 2003, pp. 110~115.

은 하와이 피진어 단어들을 사용했다³⁴⁾.

- (12) 가우가우(caucau: 음식), 놀노푸부리(lolo pupule: 완전 바보), 마나부아(manapua: 중국식 돼지고기 파이), 모모나(momona: 뚱뚱한 사람), 모이모이(moimoi: 누워 자는 것), 비기비기(wikiwiki: 빨리), 싸우하하(pau hana: 일을 마치다), 캠프 트리(Camp Three: 캠프3), 하나하나(hanahana: 얼른 일하러 가라), 가낫가(kanaka: 원주민), 막구리(makule: 노인)

천연회는 하와이 피진어를 배우게 된 과정을 술회하며 처음에는 아예 못 알아들어 여러 설움을 겪다가 차차 한 마디씩 주워들으며 여러 단어를 배웠다고 했다.³⁵⁾ 이러한 서술로 볼 때 하와이 피진어의 습득은 최소한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부 어휘의 습득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천연회의 노트에서 이러한 피진어가 하와이 농장 생활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농장 밖의 생활을 기술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하와이 원주민을 지칭하는 경우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뒤부터 농장 생활을 기술할 때까지는 피진어로 ‘가낫가’라고 했지만 농장을 나온 뒤의 삶을 기술할 때는 ‘하와이안’이나 ‘토종’을 사용했다. 이처럼 상황적 제약이나 요구를 인식하여 언어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이중언어나 다중언어 화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적 숙달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빈번히 발생한다³⁶⁾.

34) 하와이 피진어 외에도 ‘네(lei)’, ‘옥고리하와/옥고리하우(okolehao)’와 같은 하와이어 단어도 사용했다.

35) 그때는 내가 미국 영어 모러니 답답하다. 여길 도라가는 피진 영어나 한 마디 주듯고 안다. 농장 영어다. 하와인 말도 있고 일본 말도 있고 유희빈 말도 있다. 농장에서 조금 배운다는 말은 하와인 말이다. 처음으로 먹는 것 가우가우 하더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했다. 일하라 말은 하와인 말로 하나하나 하더라. 그것 몰나서 등신 모양으로 했다. 속히 일하라 말을 비기비기라 했다. 와 그렸소 하는 말 배헤야노이라고 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등신갓치 굴면 놀노푸부리랐고 했다. 누어 자는 것을 모이모이라 하고 뚱뚱한 사람은 모모나라 불렀다. 그러니 한 마디 못 알아듣고 기가 차서 난중 그 말은 배와다. 이 말은 사탕농장에서 배운 말이다. 일을 그만 곳치라 하는 말은 싸우하하 하고 그때는 농장에 습근이나 십장이 노동자의게나 압제 대우하였다. <노트1:101-102>

또한 천연희는 ‘기구(きく: 국화)’, ‘변또(べんとう: 도시락)’, ‘시비(しび: 큰 다량어)’, ‘구루마(くるま: 자동차)’ 등 일본어 단어를 일부 사용하기도 했지만 노트 전반에 걸쳐 주로 사용한 외국어는 영어였다.

- (13) 가내신(carnation), 고려연/고련(Korean), 구렛폴 추리(grapefruit tree), 나이센서/나이센스(license), 난드리샵(laundry shop), 낸시겹(landscape), 네비 마링(navy marine), 네시/네이서(lease), 노랜스(romance), 노서/우로슈(rose), 노아/노야(lawyer), 뉴야(new year), 니빈우룸(living room), 다니우룸(dining room), 티켓(ticket), 매스다 되거(master degree), 모도 카시(motor car), 미순(mission), 바서(bus), 베첼나(bachelor), 벳우룸(bathroom), 베시(base), 베시면(basement), 보추갈(Portugal), 부룩가(broker), 부메리아(Plumeria), 불닛(bullet), 비아/쌌아(beer), 핑커(pink), 석색씨폴(successful), 세덴/세텐/시텐(stand), 수가(sugar), 수토아(store), 슈추리(street), 시닉기(sneaky), 시식기(sea sick), 시턱신(citizen), 십(ship), 짖(guard), 쓰린(clean), 짝(dock), 찌치(ditch), 썸(bomb), 썸팅(building), 싸두되(Saturday), 썸디스쿨(Sunday school), 썸배신(Salvation), 썸나(seller), 썸빌윤(civilian), 썸다(soda), 썸자(soldier), 아란지(orange), 아매/아메(army), 아일랜드(island), 알노와 셔(aloha shirt), 애너미(enemy), 에어멜(air mail), 오다(order), 오피서/오피소/오피수(office), 온니(only), 외다/웨다(waiter), 우랜치 하우스(ranch house), 워(war), 월딩(welding), 유년(union), 이백게(evacuation), 인서백더(inspector), 잡(job), 조리(jury), 체크(check), চে아(chair), 추라시(trust), 카(car), 카서(casher), 칸크리(contrete), 칼나(color), 칼나면(color man), 컷(cut), 컷침(kitchen), 코캐넛(coconut), 커피(coffee), 콜드링(cold drink), 콰다(quarter), 콰아(choir), 택서/택세(taxi), 툴나(toilor), 톱블(table), 차나 면(China man), 파마(farmer), 패신자(passenger),

36) Edwards, J. *Language and Identity: Key Topics in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7~28.

퍼니처(furniture), 플레이룸(playroom), 하와이엔(Hawaiian), 하이
숙쿨(high school)

(13)에서 볼 수 있듯이 천연회는 대체로 영어 발음을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으’로 적어야 할 음절을 ‘어’로 적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rose’를 ‘노서’로, ‘bus’를 ‘바서’, ‘office’를 ‘오피서’로, ‘house’를 ‘하우서’로 적은 등이다. 이는 ‘어’와 ‘으’의 구별이 없는 진주 방언 화자로서 모어의 간섭이 일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citizen’을 적을 때 마지막 음절을 ‘슨’ 대신 ‘신’으로 적거나, ‘base’를 ‘베스’가 아닌 ‘베시’로 적은 것은 ‘스’ 뒤의 ‘-’가 ‘ㅣ’로 바뀌는 진주 방언의 전설모음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r’ 발음을 적을 때 앞에 ‘우’를 붙였던 20세기 초 표기가 널리 나타났는데, ‘room’을 ‘우룸’으로 적은 예가 많았고 ‘ranch’를 ‘우렌치’라고 적었으며, ‘rose’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대로 ‘노서’라고 적기도 했지만 ‘우로슈’라고 적기도 했다. 이러한 표기 양상은 20세기 초의 관습적 표기법과 현지어의 발음 그대로를 적는 자신의 표기 방식이 뒤섞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래어 표기 외에도 천연회 노트에는 ‘·’나 ‘ㅅ’계 합용병서, ‘ㅅ’, ‘ㅈ’, ‘ㅊ’ 뒤 /j/의 사용, 7중성 표기, 두음법칙 미반영 표기, 구개음화 미반영 표기 등 20세기 초 한글 표기의 특징들이 두루 나타났는데, 이는 천연회가 어릴 때 배운 한글 표기법이 평생토록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4a), (14b)와 같이 영어 단어와 같은 뜻의 한국어 단어를 나란히 적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기도 했고, 순서로 볼 때 주로 영어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한국어 단어를 덧붙였다. 이러한 동어반복적 쓰임 외에도 영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조합해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기도 했다. (14c)는 합성어, (14d)는 파생어의 예에 해당한다.

- (14) a. 영어+한국어: 노아lawyer 법률사, 우리의 락luck이 재수가, 매리 marry 혼인하는, 스칼나십scholarship 학비, 씨추search(되질나)하는, 웰페아welfare 구제법, 북book(책), 호텔hotel 여관, 포수추리

- Fort Street 거리, 오다order(주문), 캐시cash(맛돈), 플라와flower (꽃), 하와이Hawaii 유니버시티University 대학교, 씨니아senior 씨리신citizen 늙은이들, 와치watch(지키)보는 일군, 크린clean하(치우)고, 썬만과 푸랜치(덕국과 법국), 너서nurse 간호부
- b. 한국어+영어: 법률사 노야lawyer, 민주의 썬믹걸시democracy, 교섭을(네고시에negotiation), 염통(햏heart)
- c. 합성어: 햏heart병, 메리marry반지, 너비시nervous병, 시리city정부, 이민쥬리jury
- d. 파생어: 디벨롭develop하여, 네블level한 후, 무푸move하는, 시답stop하는, 시벌civil하고, 쓰린clean하고, 오다(order)하기에, 햏hurt해, 홈식기homesick되다

천연희는 자신의 삶을 서술할 때 거주한 지역에 따라 한국어 단어 혹은 외국어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진주에서의 어린 시절을 서술할 때는 외국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하와이 도착 이후의 이야기를 적을 때부터 외국어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특히 사탕수수 농장 생활을 서술할 때는 하와이 피진어의 사용이 많았고, 농장을 떠난 뒤의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는 영어 단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같은 개념이라도 하와이 도착 이전에 대한 서술에서는 ‘여관, 전방, 자동차’라고 썼지만, 미국 생활을 서술할 때는 ‘호텔, 수도아, 카’로 적는 식이었다. 이와 같이 천연희 노트에는 천연희가 살아왔던 다언어적 환경과 이로 인한 언어 접촉의 결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천연희 노트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방언 접촉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³⁷⁾. 일찍이 연해주에 정착했던 초기 이주 한인들은 대부분 육진 방언을 사용했지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뒤 고려인들의 언어는 다양한 방언들이 혼합된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³⁸⁾ 천연희의 어휘 사용 양

37) 이 단락의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상을 볼 때 하와이 이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방언 간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15)에서 볼 수 있듯이³⁹⁾, 천연희가 진주 출신인 만큼 천연희 노트에서는 경상도 방언이 다수 사용되었지만,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등 전국 방언 어휘가 두루 확인된다.

- (15) a. 경남: 두덕(두독), 바너질(바느질), 사구(자배기), 십간(습관), 헤(회)
 b. 경남/경북: 곤치다(고치다), 기밀(귀리), 니비(누에), 달(닭), 물미(멀미), 썬(뺨), 아재(삼촌), 정지(부엌), 절⁴⁰⁾(결), 줄(굴), 채족⁴¹⁾(채찍)
 c. 경북: 게을(겨울), 배춧(배꼽), 우봉(우영), 위국(외국), 정지문(부엌문)
 d. 강원: 자봉(재봉), 짐(검)
 e. 경기: 소리길(소로)
 f. 경기/전남: 메너리(머느리)
 g. 경기/강원/전남: 먼침(먼저)
 h. 전남: 짐생(짐승)
 i. 전남/평북: 기벨(기별)
 j. 제주: 자미(재미), 장난가음(장난감)
 k. 충남: 그간⁴²⁾(거간)
 l. 평북: 찬채(잔치)
 m. 평남/평북/함남/함북/황해: 두상(늪은이)
 n. 함남: 청대(층대)
 o. 함북: 헤움(시늬)
 p. 함남/함북: 행래⁴³⁾(항내)

38) 이경희,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형태 - 어휘적 분석: 방언과 러시아어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24(2),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201~202쪽.

39) 방언의 지역성 판단은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와 그 외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의 경우는 천연희가 진주 출신임을 고려해 경상도 방언으로서 쓰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40) 천연희 노트에서는 '곶태(결에)'로 쓰였다.

41) 『우리말샘』에는 '채쪽'으로 등재되어 있다.

42) 『우리말샘』에는 '그간꾼'으로 등재되어 있다.

43) 『우리말샘』에는 '행내'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은 하와이 디아스포라의 한국어가 여러 방언이 뒤섞인 코이네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천연희 노트에서 확인되는 언어적 혼종성은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즉, 1970~1980년대에 작성한 글임에도 (16)과 같이 20세기 초 어휘들을 그대로 사용한 점이다.

(16) 감자(귤), 고본(투자금), 고본주(투자자), 곡상간(부업), 공기선/공기선/비행선/비행선(비행기), 기계창(공당), 덕국(독일), 룰사/올사/범룰사(변호사), 만경대(전망대), 미미교(미국 감리교), 반중(혼혈), 불질(총질), 쌍광/땅광(지하실), 아라사(러시아), 여행권(여권), 예수교(기독교), 요리집(식당), 원족회(소풍), 자봉침(재봉틀), 전기기동(가로등), 전기선(전선), 전방(가게), 직경차(기차), 청국(중국), 청년시대(청년시절), 청춘시대(청춘시절), 침방(침실), 침장(침대), 통변(통역), 파공(파업), 팔거리(팔찌), 휴접실(휴게실)

천연희는 1915년에 하와이에 온 뒤 한 차례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101세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남은 평생을 하와이에서 보냈다. 이런 사정은 천연희가 주로 어울려 지냈던 초기 이민자들도 대체로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말 새 이민이 시작되기까지 이들이 접한 한국어는 하와이 이주 한인들 간의 대화에서 오갔던 구어 한국어와 하와이나 미주 한인 단체의 출판물에 쓰인 한국어가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언어 변화는 한반도 내의 언어 변화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천연희 노트를 통해 하와이 디아스포라의 한국어 역시 독자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표기법이나 어휘 사용 양상을 볼 때 시간적으로는 20세기 초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하와이 군도라는 특정 지역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서 전국 방언들이 뒤섞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고 동시에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이민족들의 언어가 침투해 들어오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4. 결론

신여성이라는 존재가 근대와 여성이 만나는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라면⁴⁴⁾ 사진신부는 그에 더해 이주와 노동 등 추가적 요인들이 작용해 탄생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신여성들이 일제 치하이자 가부장제가 여전히 유지되며 산업화의 초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조선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하와이 한인 여성들은 그러한 제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만리타국에서 노동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경을 극복해야 했다. 그렇기에 두 여성 집단이 체현한 근대적 여성상은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갖지만 차별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천연희의 경우 기독교 학교에서 근대 교육을 받으며 여성 해방을 꿈꾸는 신여성으로 성장했지만, 하와이로 이주하며 신여성의 정체성 위에 사진신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갔다.

천연희는 노트 1의 첫머리에서 ‘나 개인이 사진혼인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자 하며 ‘하와이에 사진혼인으로 들어온 여자들 중 학식 있는 여자 몇이 있지만 아직 이런 글을 쓴 이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년의 필력을 다해 기록을 이어갔던 천연희의 글쓰기 행위는 학식 있는 여성이자 사진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타인과 언어적 행위를 공유함으로써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천연희가 자신의 기록에서 어떠한 언어적 선택을 내렸는가 하는 문제는 정체성 표출의 한 방법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천연희가 남긴 7권의 노트는 여러 언어의 파편들이 뒤섞인 양상을 거리낌 없이 보여준다. 한국어 문장의 곳곳에 들리는 대로 적은 부정확한 영어 단어를 섞어 썼고, 때때로 영어 단어에 같은 뜻의 한국어 단어를 덧붙여 의사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식을 보였다. 한국어와 영어를 결합해 새로운 복합

44) 김숙희, 「근대적 여성의 기획 - 한독 신여성 연구(1): 같은 이름의 두 얼굴: 한독 신여성의 정체성」, 『독일문학』 95, 한국독어독문학회, 145쪽.

어를 만들어 내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혼종적 문장은 어린 시절에 배운 교과서에서도, 애독했던 한인 신문에서도 볼 수 없는, 즉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학습된 문장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민 2세, 3세들과 달리 천연희 같은 이민 1세대들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일상의 체험을 통해 영어를 익혔고, 단어를 주워듣는 방식으로 배워간 영어는 문장이 부여하는 언어적 질서를 깨고 파편화된 형태로 모어의 틈을 파고들었다. 이종(異種)의 언어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어우러지고 결합하는 양상에 더해, 한국을 떠나올 당시의 표기법과 어휘, 그리고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의 방언이 뒤섞인 양상들은 디아스포라 한국어의 혼종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문옥표 · 이덕희 · 함한희 · 김점숙 · 김순주,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 안예리 · 신익철 · 조용희 · 서승희, 『포와유람기와 근대 하와이 여행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 웨인 패터슨,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정대화 옮김, 들녘, 2003.
- 윤금선, 『우리말 우리글 디아스포라의 언어: 근대 해외 한인의 국어교육사』, 월인, 2017.
-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M&B, 2003.
- _____,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이선주 ·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초창기 이민자들과의 인터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 Edwards, J. *Language and Identity: Key Topics in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akoda, K., and J. Siegel. *Pidgi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Creole Languages of Hawai'i*, Honolulu: Bess Press, 2003.

2. 논문

- 김숙희, 「근대적 여성의 기획-한독 신여성 연구(1): 같은 이름의 두 얼굴-한독 신여성의 정체성」, 『독일문학』 95, 한국독어독문학회, 145~167쪽.
- 김순주, 「세 번의 결혼과 가족생활」,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58~71쪽.
- 김점숙, 「천연희의 사회참여 활동」,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90~118쪽.
- 안예리,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국문 신문 『신한국보』의 광고 연구」,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2022, 15~46쪽.
- 오은영,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1919~194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희,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형태-어휘적 분석: 방언과 러시아어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24(2),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199~223쪽.
- 이덕희, 「천연희 기록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18~42쪽.
- 함한희, 「천연희의 경제활동과 일가의 경영」,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72~89쪽.

The Linguistic and Cultural Analysis of Chun Yun-Hee's Notes

An, Yelee*

Chun Yun-Hee's notes are autobiographical records left by Chun Yun-Hee, who, at the age of 19, became a picture bride and moved to Hawaii in 1915. She documented these notes from 1971 to 1984, providing detailed accounts of her motivations and process of becoming a picture bride, her marital lives, and her settlement in Hawaii, as well as key events and figures in the Korean community at that time. Chun Yun-Hee was a modern woman who had received a formal school education, which was rare for picture brides back then. Utilizing her writing skills to the fullest, she preserved the life stories of picture brides, filling seven notebooks. These records not only include vivid anecdotes from that era but also reflect Chun Yun-Hee's personal beliefs and values. This paper examines how her strong belief in education and self-awareness as an educated woman intertwined with the progressive activitie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Hawaii, demonstrating how Chun Yun-Hee grew along with the Korean community there.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linguistic features of Chun Yun-Hee's notes, this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identity of Korean immigrants living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The use of not only Gyeongsang dialect, reflecting her origins in Jinju, but also vocabulary from various regional dialects demonstrate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dialect contact among immigrants. The selective use of foreign languages such as English, Japanese, and Hawaiian

* Academy of Korea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Pidgin within Korean sentences, depending on the subject matter, was also observed. Despite being written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notes maintained the vocabulary and orthography from the early 20th century, when she first left Korea, indicating that the language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exhibited hybridity not only spatially but also temporally.

Key words : Hawaii, picture brides, diaspora, Chun Yun-Hee, linguistic hybridity